

크리테오, 글로벌 여행업계 회복 청신호 전망

- 크리테오, 글로벌 여행업계 현황 분석으로 여행업계의 2022 년 대비 지원
 -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여행업계 회복세, 2022 년 봄과 여름 시즌 여행 수요 증가 전망
-

신뢰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광고를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 크리테오 (크리테오코리아 대표 김도윤)가 글로벌 여행업계에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분석하며 여행업계가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.

크리테오는 2019 년 대비 여행업계 전반 예매 및 이용 관련 수치를 분석한 결과, 코로나 19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글로벌 여행업계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. 특히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, 항공 예매 수준이 모든 지역에서 상당히 개선됐다. 항공권 예매율은 2020 년 10 월에 전년 동기 대비 64% 감소했으나, 1 년 뒤인 2021 년 10 월에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에 비해 36% 감소하는 데 그쳤다. 해당 수치로 보면 항공권 예매율 회복 속도가 다소 느리긴 하나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지역 별로는 2021 년 10 월 예매율이 무려 18% 증가해 79% 수준까지 회복한 미국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,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시 2020 년 22%에 머물렀던 항공권 예매율이 1 년 새 31%까지 증가했다.

호텔 예약 역시 회복세를 보였다. 항공권 예약보다는 코로나 19 로 인한 감소폭이 적었던 영역이지만, 전세계적으로 2021 년 10 월에는 코로나 19 이전 대비 84% 수준까지 회복했다.

이 같은 변화를 뒷받침하는 심리적 변화 요인도 확인됐다. 여행 기간 중 코로나 19 에 대한 걱정이 소폭이기는 해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한국의 경우, 올해 1 분기 여행객 중 66%가 여행 중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했지만 3 분기에는 2% 감소한 64%를 기록했다. 글로벌 기준에서는 62%에서 54%로 감소했다.

향후 6 개월 내 여행 계획을 세우는 국내 여행자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. 전세계적으로 1 분기 69%가 6 개월 내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고 답했던 것이 3 분기에는 72%로 늘었다. 한국 역시 66%에서 74%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. 이에 크리테오는 2022 년 상반기 여행을 위한 예약이 향후 몇 주 내에 이뤄질 것이며, 이미 2022 년 봄과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여행객들이 많은 것으로 예측했다.

한편, 여행 관련 티켓 예매나 구매 등은 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전세계적으로 52%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,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63%가 모바일 앱을 이용했으며 23%는 모바일 웹으로 예약을 하는 등 모바일 디바이스 이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.

크리테오코리아 김도윤 대표는 “국내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 회복도 그 속도는 느리지만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”며, “실제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



데이터에서도 회복세로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보이고 있는 만큼, 달라진 소비자들의 여행 심리를 겨냥한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"이라고 조언했다.